

##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진행에 대한 총참모부 보도

미국과 남조선의 무모한 군사적 위협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심각한 정세기류는 더욱 불안정한 대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남조선지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으로 핵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역대 최대규모의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되었다.

적들의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냥한 침략적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침략적인 군사훈련들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무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결

결한 대응의지와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작전 1일 오전 평안북도지역의 미사일부대로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와 지하침투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으며

오전과 오후 동, 서해안연선의 공군 반항공미사일부대로 각이한 고도와 거리의 공중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가 사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랙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

도폭탄으로 우리측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지역 출신시일 80km 부근수역(위도 35° 29' 51. 6", 경도 130° 19' 39. 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민음성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광기를 짓궂게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작전 3일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이 진행되었다.

작전 4일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모든 대응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무력은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실성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단행한 대응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것이라는 우리

의 명백한 대답으로 되며 이는 곧 앞으로 드립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온갖

반공화국전쟁연습들에 지속적으로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군사조치들로써 대응해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각일각 전쟁집경으로 차닫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핵전략폭격기를 포함한 24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된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경계하는 폭풍》)이 실시되었다.

역대 최대규모로 감행된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공화국을 직접적인 타격목표로 겨냥한 침략적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특히 남조선에서 유색열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의식이 골수에 박힌 유색열역적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

로 선포한데 이어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의 재개 및 확대, 《확장적전력협약》제가동,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등을 합의하였는가 하면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기 앞서서도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수역에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건》호라격적단을 끌어들이는데 이어 나흘간에 걸쳐 조선 동해상에서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으며 9월 30일에는 미국, 일본과의 연합반잠수함훈련을 강행하였다.

미군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이 앞서서도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수역에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건》호라격적단을 끌어들이는데 이어 나흘간에 걸쳐 조선 동해상에서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으며 9월 30일에는 미국, 일본과의 연합반잠수함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10월 6일에는 조선동해수역에 떠났던 미핵항공모함 타격적단을 다시 끌어들이려 함미사일방어훈련을 벌려놓았고 7일과 8일에는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이 기간 역적패당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를 내세워 공화국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로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내었다.

최근에도 유색열역적패당은 공화국의 정당한 군사적대응조치를 《도발》로 결고들며 북침전쟁연습인 《2022 태극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유색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암적존재,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유색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히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유색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전쟁대결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 겨례는 너무나 오랜 세월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던 안이였으며 그 상층은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겨례의 가슴에 아프게 새겨져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터지면 첫째가는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하여 《전쟁이 현실로 될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 평화에 역행하는 무력시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색열(정부)는 군사적긴장과 대결, 대항사를 초래할수 있는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반미, 반전, 반유색열역적패당을 떨쳐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용당하다.

반미, 반전, 반유색열역적패당의 불길들 더 높이 지퍼올리는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내는 길이다. 온 겨례는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적힘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공화국의 강력

한 힘이 있기에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다.

정의를 지향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공화국의 자위적힘을 적극 지지옹호하는것은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남조선이 걸기없이 공화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불구름을 몰아오지만 그것은 전쟁과 대결로 유지해온 생존공간을 잃고 력사의 뒤길로 사라지게 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례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녕을 반드시 지켜내야할것이다.



《공중우세》를 떠들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간살육과 파괴민행을 감행하는 악의 제국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수많은 비행기들을 내몰아 조선과 공화국후방에 출몰단을 퍼부어왔다. 당시 미국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도발 이후 330일동안에만 하여도 《B-29》를 비롯한 들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미군직 승격적수사관들, 2003년 3월 공화국의 추격기비행사들이 15m까지 접근하여 조준태세를 취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미국의 《RC-135》전자정찰기... ◆ 남의 평화를 넘겨다보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발광적으로 벌린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은 공중비적들에게 여전히 무서운 죽음의 하늘로 되고있다. 적들의 침략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공화국군대는 실천적인 대응군사작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질수가 없다.

《공중우세》를 떠들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간살육과 파괴민행을 감행하는 악의 제국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수많은 비행기들을 내몰아 조선과 공화국후방에 출몰단을 퍼부어왔다. 당시 미국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도발 이후 330일동안에만 하여도 《B-29》를 비롯한 들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미군직 승격적수사관들, 2003년 3월 공화국의 추격기비행사들이 15m까지 접근하여 조준태세를 취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미국의 《RC-135》전자정찰기... ◆ 남의 평화를 넘겨다보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발광적으로 벌린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은 공중비적들에게 여전히 무서운 죽음의 하늘로 되고있다. 적들의 침략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공화국군대는 실천적인 대응군사작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질수가 없다.

### 공중비적

《공중우세》를 떠들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간살육과 파괴민행을 감행하는 악의 제국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수많은 비행기들을 내몰아 조선과 공화국후방에 출몰단을 퍼부어왔다. 당시 미국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도발 이후 330일동안에만 하여도 《B-29》를 비롯한 들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미군직 승격적수사관들, 2003년 3월 공화국의 추격기비행사들이 15m까지 접근하여 조준태세를 취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미국의 《RC-135》전자정찰기... ◆ 남의 평화를 넘겨다보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발광적으로 벌린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은 공중비적들에게 여전히 무서운 죽음의 하늘로 되고있다. 적들의 침략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공화국군대는 실천적인 대응군사작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질수가 없다.